

# 꼬빌리시교회 한국어 주일예배

2024. 8. 18. 11:28-

인도: 류광현 목사

설교: 류광현 목사

기도: 최소윤 집사

봉헌: 서현, 류한별

**경배와 찬양** - 찬양팀 인도(11:15부터)

**예배의 초청** - 시편119:130,105 + 요4:24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아멘.

**여는 기도**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감사찬송** - 새42[통11] 거룩한 주님께

(통일 11)

주일

J. S. B. Monsell(1811-1875)

보통으로

# 거룩한 주님께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거룩한 뜻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 29:2)

# 42

MONSELL: 12.10.12.10.  
W. F. Sherwin(1826-1888)

1.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2. 주앞에서 주삼배하리라  
 3. 주앞에서 주삼배하리라  
 4. 떨려서 주삼배하리라

무릎 꿇고 서 영광 받으시리라  
 주께 찬양을 올리시리라  
 금말보어 갈렐 배둔은 순위진지 종로리나고 향기온새 기도유아 례엔한침 겸용사맛 손담랑은니

주네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님갈림과 바다 소망 칠귀한 하하물리  
 아멘

쉬운 기타코드(capo=3rd) B<sup>b</sup>→G E<sup>b</sup>→C F→D Gm→Em

## 기도

### 교회공동기도

-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살게 하소서
- 8월말에 있을 인터내셔널캠프에 주께서 함께하소서
-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 개인기도

대표기도: 문수진 집사

##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 어린이시간

### 교회소식

2024년 공동체 주제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 참되게 예배하자!

1. 성도의 교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예배 후에 교회학교 분반공부, 식탁교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3. 다음 주일(8.25)에도 11시 28분에 한국어예배가 있겠습니다. 11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4. 프라하교빌리시교회 주관 인터내셔널캠프가 8.26~30(월-금/9:00-16:00)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대표기도 순서: **최소윤**, 주승민, 서규성, 성길동, 최다연, 박수진, 황인하, 정양숙, 정태훈, 배우리, 김동석, 여경화, 이인선, 예창열, 박상훈, 김명희, 장정임, 김영만, 한수연, 문수진
6. 설거지 봉사 담당: 8.18-장정임,류광현,우예슬,박종선/ 8.25-정연실,김영만,강민수,최경원/ 9.8-여경화,서규성,차혜숙,황인하/ 9.15-정양숙,박상훈,최소윤,최다연/ 9.22-한수연,정태훈,김명희,정의현/ 9.29-배우리,주승민,강희,서진,박영희/ 10.11-홍희숙,문수진,이인선,박상영/ 10.18-장정임,류광현,박서린,소유진/ 10.25-정연실,김영만,민주형,김하영

### 성경읽기

<요한복음 12:35-36>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설교 - "빛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문에 "빛이 있을 동안에"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빛이 없을 때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빛이 있을 동안에"라는 말은 아직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계실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할 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그리하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는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분별이 가능하고, 올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디로 가야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니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 어둠에 붙잡혀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위험한 일입니다. 밤에 이리 저리 미친 뜻이 뛰어다니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가다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야할지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 잡혀 있다면 설령 그 가는 길에서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극복하고 나아가 결국 다다라야 할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가 잘못돼 있다면 아무리 그 길을 열심히 갔다 해도 끝이 좋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잘 닦인 길을 따라 무작정 가다보니 엉뚱한 곳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훨씬 더 먼 거리를 힘들게 돌아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1:3) 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빛을 보았을 때 그 빛을 향해 나아가라, 그 빛 안에서 그분의 길을 따라 나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빛을 보았음에도 그 빛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예가 본문 뒤쪽에 나옵니다. 42-43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세상을 살다보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둡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체코의 시골길을 밤에 차로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라 가뜩이나 부담스런 운전이었는데, 네비게이션은 계속 한번도 가보지 않은 비포장도로로 안내하고, 길가엔 가로등 하나 없어 헤드라이트를 켜는데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정말 등에 식은땀이 흐르며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타신 손님이 그제껏 제가 모르고 있던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헤드라이트 레버를 위로 올린 채 손으로 계속 잡고 있으면, 빛이 멀리까지 뻗어가면서 앞이 잘 보일 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앞이 잘 보이고 운전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더불어 마음도 평안해지고, 얼마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빛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그분의 걸음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받아야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더라구요. 마음이 밝은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삽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무엇이 진정 좋은 삶인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분명 모든 사람이 알고 따라야 할 진리이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에 진로를 고민하면서 적성도 따지고 전망도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방향'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갈 것입니까? 또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구할 것입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여 빛의 아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빛을 믿으라'는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빛의 아들, 영광스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9-12)

오늘 본문 36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고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합니다. 이상하죠? 숨으시면 사람들이 그분을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의 빛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어쩌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술사가 쇼를 하듯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적'은 '기적'을 포함할 수 있지만 기적(miracle)과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표적은 싸인

(sign)입니다. 나타난 일 너머의 어떤 진실, 어떤 실재를 가리키는 싸인으로서의 어떤 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공공연히 행하신 일들 중에는 그분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싸인으로서의 표적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본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가리키는 더 심오한 진실은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광야에서 예수님 주시는 빵을 먹으면서도 그분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했지 그들을 위해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려 오신 구세주로 그분을 대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육안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비쳐든 빛을 통해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못 보느냐입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그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이 의지해야 할 진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분이 거기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처럼 사람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빛이 비치고 마침내 성령의 빛을 받으며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수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해도 빛을 받을 수 있고 빛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가시권을 넘어설 정도로 너무나 심오해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해서,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이 내 눈을 감겨 있게 하신다 해서 우리가 그분께 불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 눈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빛이 우리에게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빛을 믿는 일입니다.

빛을 받으면 믿게 됩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잘 알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새로 보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 앞에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이 세상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바로 마음이 밝아진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봉헌 - 새445[통502]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헌금봉사: 서현, 류한별

# 445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통일 502)

H. J. Zelle, 1899

Walking in sunlight all of my journey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요일 1:7)

주와 동행

HEAVENLY SUNLIGHT: 10.9.10.9.REF.  
G. H. Cook, 1899

보통으로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2.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3.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않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후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 예수 열방의 소망

Hope of the Nations

**V**n Doerksen



예수 열방의 소-망 - 예수 우리의 위-로 - 가  
 예수 어둠속의-빛 - 예수 변함없는-건-리



주는 - 온 땅 - 의 영 - 원한 소망 -  
 주는 - 온 땅 - 의 빛 - 이 되 시네

**PC**



- 우리 - 위해 죽으 - 시고 다시 - 사신



생명 - 의 주 - 주님 만이 - 소망이요 -



변함없는 - 반석이라 - 주님 만이 - 온 세상을



- 비추 - 시네 - 또 죽음에서 - 부활하신



- 우리 구주 - 평강의 왕 - 주를 믿는 - 모든 자의



- 소망 - 되신 - 주를 - 믿네 -

Copyright (C) 2002 Integrity's Hosanna! Music. Adm. By CopyCare Korea/Pasil Int.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Translated & Approved by CopyCare Korea/Pasil Int.